

# 매일묵상일기

## 가정에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에배자료

### “유한한 인생의 의지할 하나님”

2026년 4월 7일(화)

- 찬송 ..... (71장) ..... 다함께
- 기도 ..... 가족 중에서
- 성경 ..... (시 90:1~17) ..... 다함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 90:12)

- 묵상자료 ..... 인도자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곧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시 18:2)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쳤던 엔게디 요새는 천연 요새로, 숨을 동굴도 많고 오아시스가 있어 물 또한 풍부한 곳이였기에 얼마든지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엔게디가 피할 바위였으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요새이시고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100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후회할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는 주어진 하루 중 무엇을 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 기도 .....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후회할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 다함께